

PRESS RELEASE

에스디바이오센서, 1분기 매출 1,824억 원 달성

- ▶ PPA 상각 비용, 재고 자산 충당금, 외환 차손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발생
- ▶ 인체의 혈액 내 간 기능, 전해질 등 생화학 검사가 가능한 신규 플랫폼 'C10' 연내 런칭 계획 밝혀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각자대표 이효근, 허태영)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824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824억 원, 영업손실은 1,238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각각 7.6%, 8.0%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1분기에는 올해 1월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인수합병 후 연결회계처리에 따른 PPA* 상각 비용과 재고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재고자산 충당금, 외환 차손 등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주력 제품인 STANDARD M10에 대해 "1분기에는 독감, RSV, 코로나19 동시 진단이 가능한 STANDARD M10 FLU/RSV/SARS-CoV-2 카트리지 식약처 정식 허가를 획득했고 연내에 대장균 검사가 가능한 씨디피실(*C.difficile*)제품 및 다제내성 결핵 검사가 가능한 MDR-TB 제품의 국내 식약처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체의 혈액 내 간 기능, 전해질 등의 수치를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생화학 검사 플랫폼 'C10'을 연내 런칭할 계획이다"고 추가로 밝혔다.